

5. 선장면

가. 선장면 마을 1 (군덕리)

1) 조사일정

1994. 12. 17, 권민정 기록.

조사 첫날인 12월 17일 오전 9시 50분에 숙소를 떠나 선장면 군덕노인회관에 10시 50분에 도착하였다. 노인 회관에는 노인이 여섯 명이 있었는데, 사전 조사 때 미리 약속을 했던 곳이라서 반가이 맞아 주었다. 전에 면장을 지냈던 김영일 씨가 <토정 이지함과 생물>, <황소 타고 다닌 땡사성>, <박문수와 임금>,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을 구연했고, 뒤이어 정옥산 씨가 <도깨비와의 씨름>을 구연하였다. 그러던 중 뒤늦게 들어온 최용운 씨가 <어리석은 원님과 현명한 부인>, <이지함과 소금장수>를 이야기했다. 노인들이 몇 분 더 있었으나, 이야기를 더 꺼내려 하지 않고, 점심 식사 준비로 어수선해져 노인 회관을 나왔다. 군덕노인회관을 나온 후, 같은 군덕리에 있는 선일노인정을 찾아가니 노인 다섯 명이 화투를 치고 있었다. 취지를 설명했으나 역사적인 내용이 아니고, 나이가 들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구연하기를 꺼렸다. 그러던 중 조사자들의 구연 유도 이야기 덕분에 김문묵 씨로부터 <신동리 열녀 이야기>와 <화성산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12시 30분에 선일노인정을 나와 중식을 한 후 1시 10분 선장면에서 노인들이 가장 많이 모인다는 삼선노인정을 향해 출발했다. 삼선노인정에는 말대로 노인들이 무척 많았으나 모두들 화투를 치느라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노인 회장을 맡고 있는 장우기 씨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없어 제대로 된 구연을 못하자, 옆에 있던 방중옥 씨가 <죽림의 혼>을 이야기하였다. 장우기 씨는 미안했던 모양인지 부인 임정식 씨를 불러 주었다. 임정식 씨는 <강도 잡은 이야기>, <삼래전>, <두번 결혼 한 男子>, <암행어사 이야기>를 재미있게 구연해 풀이 죽어 있던 조사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4시에 삼선 노인정을 나와 5시에 숙소로 도착했다. 도착해 장비를 풀고 잠시 쉬고 있는데, 오목노인회관에서 1조에게 구연을 해 주고 갔던 이원영 씨가 구연을 해줄 것이 있다며 다시 찾아 왔다. 이에 쉬고 있던 3조가 이원영 씨의 구연을 듣게 되었다. 이원영 씨는 <고불 땡사성과 감동받은 원님>, <맹정승의 효성>을 구연해 주고는 아쉬워하며 돌아갔다.

1996. 12. 17, 김선희 기록.

보완조사 둘째 날 아침식사를 마치고 10시 30분에 군덕리노인회관으로 출발하였다. 10시 50분에 노인회관에 도착하니 노인 10여 명이 TV를 시청하고 있었다. 지난 답사 때 구연해주었던 노인 둘을 만났다. 먼저 정옥산 씨가 <도깨비 이야기>를 해 주었고, 그때 마침 들어온 김영일 씨가 <고려장 이야기>를 해 주었다. 굳이 구연을 사양하던 최용운 씨가 조사자의 간청에 짧은 이야기를 해 주겠다면서 <지혜로운 아들 이야기>를 구연해 주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으나 사양하고 구연에 대한 감사의 말을 남기고 12시에 노인회관을 나왔다.

2) 마을개관

【선장면 마을 1】

336-890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1994. 12. 17, 이재향 조사

189세대에 총 700명이 사는 군덕 1리는 지역이 워낙 넓어 자연 부락의 이름이 꽤 많다. 선창머리, 장터, 윗장벌, 산막이라 했다고 한다. 남녀의 비율은 349:351로 농업에 35% 종사하고 대부분은 상업에 종사한다. 교육시설로는 국민학교가 하나 있고 공공 기관은 면 사무소와 농협, 경찰지서가 있다. 사찰은 없고 주민의 대부분이 기독교를 믿는데 2개의 교회가 있다. 전래하는 민속 행사는 없고 공공기관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농촌 마을 중에서 다른 마을에 비해 발달되었다. 다방과 미용실이 많이 있고 농촌 마을의 느낌은 별로 느낄 수 없다.

1996. 12. 17, 서원기 조사

‘벧머리’라는 자연부락 명칭을 가진 군덕리는 100여 세대에 300여 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다. 50대 이상 노인과 여자가 많다. 논농사와 가축농사를 주로 하는데 생활정도는 중간이라 한다. 아이들은 선장초등학교, 선장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는 주로 온양으로 나간다. 종교는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감리교, 장로교)이고 불교신자는 1%도 안 된다고 한다. 건물들이 넓었지만 농협, 새마을금고 등이 있어 사람의 왕래는 잦았다. 건물들이 오래 되기는 했지만, 깨끗하게 가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흔적이 보였다. 노인정 건물이 특히 오래 된 것 같았다. 명절 때는 농악놀이를 하고 2월에는 돈을 추렴하여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시며 논다고 한다.

3) 구연자

【군덕리 구연자 1】

아산시 선장면 신동리 2구, 김문묵(金文墨), 남, 77.

1994. 12. 17, 박주영 조사.

키가 작은 편이고 머리가 희게 세었다. 아랫니가 빠져있고 눈이 작다. 구연을 하면서 머리를 긁고 손을 흔들면서 계속해서 땅을 두드린다. 옆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에 끼어들면 ‘가만히 있어’라고 한다. 여자의 정조나 열녀의 이야기를 중시하고 지금 사람과 옛 사람을 비교해서 비판을 한다.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나 풍속은 잘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자신의 이야기에 자신의 없고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에게 전해들은 것이라고 한다. 청자들은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한 마디씩 이야기에 끼어든다. 구연한 자료에는 <신동리 열녀 이야기>, <학성산의 유래>가 있다.

【군덕리 구연자 2】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300번지, 김영일(金榮一), 남, 74.

1994. 12. 17, 박주영 조사.

약간 왜소한 체구의 김영일 씨는 안경을 키고 머리가 약간 벗겨졌다. 앞니가 하나 없고 얼굴이 검은 편인데, 구연할 때 계속 입술을 적시면서 구연을 한다. 개방적이기보다 폐쇄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는 듯했다. 대체로 객관적이며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니거나 객관적으로 여러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 했다. 구연할 때 다른 청자들은 대체로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였으며 자신의 이야기에 자신이 없고, 잘 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다. 구연한 자료에는 <토정 이지함과 생틀>, <황소 타고 다닌 맹사성>, <어사 박문수와 임금>,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이 있다.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300번지, 김영일(金榮一), 남, 76.

1996. 12. 17, 박제형 조사.

초등학교를 나와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살다가 지금은 연로하여 노인회관 등에서 소일하고 지낸다.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있고 머리가 많이 벗겨졌다. 젓가락을 하나 잡고 계속 바닥을 두드리면서 구연한다.

【군덕리 구연자 3】

아산시 선장면 대흥리 2구, 박종옥(朴鍾玉), 남, 75.

1994. 12. 17, 박주영 조사.

머리가 하얗게 세었으며 얼굴이 비교적 크다. 눈꺼풀이 눈을 덮고 있으며 아울러 눈도 처져 있다. 한 쪽 팔이 없다. 손을 움직여 설명을 하는데 구연 시에 ‘~말이지’, ‘~말이야’를 자주 사용한다. 할아버지의 말에 모두 귀담아 듣지 않고 화투판을 벌인 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주로 세상에 대해 원한을 품은 이야기나 그 원한을 푸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어떤 반항적·적대적 입장을 가진다. 그리고 폐쇄적인 모습도 보인다. <죽림의 혼>을 구연해 주었다.

【군덕리 구연자 4】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군덕 1구 420번지, 정옥산(鄭玉山), 남, 73.

1994. 12. 17, 박주영 조사.

얼굴의 볼 가운데 깊게 주름굴이 패어 있으며 눈썹이 아래로 처짐과 아울러 눈꼬리도 처지고 얼굴이 비교적 작다. 구연할 때 계속해서 방바닥에 손을 사용해 뭔가를 그린다. 자신의

이야기에 자신감이 별로 없고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꺼려하는 입장을 취하며 이야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구연상황에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비교적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었는데, 나서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꺼려한다. 구연한 자료에는 <도깨비와의 씨름>을 구연하고 <풍년가>,<청춘가>를 불렀다.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군덕 1구 420번지, 정옥산(鄭玉山), 남, 75.

1996. 12. 17, 박재형 조사.

옛날에 서당엘 다녔다고 하며, 줄곧 농사를 짓고 살았다. 짧은 머리에 눈이 많이 들어간 편이다. 보조개가 인상적이나 이가 많이 빠져서 발음이 부정확하다. 구연 시 손짓을 많이 하는 편이다. <도깨비 이야기>를 해 주었다.

【군덕리 구연자 5】

아산시 선장면 신동리 1구 110번지, 최용운(崔龍雲), 남, 71

1994. 12. 17, 박주영 조사.

머리가 하얗게 쎄고 비교적 얼굴이 긴 편이며, 눈썹과 눈이 아래로 처졌다. 매우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활동적이면서 구연 시 손을 허공으로 휘두른다. 청중들로부터 인기가 좋고 그래서 구연 시에도 모두 경청을 하였다. 자신의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는 것이라는 듯이 자신감에 차 있고 구비문학이 별거 아니라는 태도를 취했다. 옛날 벼슬을 지낸 사람들의 현명함을 칭송한다. 구연한 자료에는 <어리석은 원님과 현명한 부인>, <이지함과 소금장수>가 있다.

아산시 선장면 신동리 1구 110번지, 최용운(崔龍雲), 남, 73

1996. 12. 17, 박재형 조사.

학교에는 다닌 적이 없다. 머리가 짧고 백발이다. 눈이 작고 코가 매우 길다. 말을 많이 더듬는 편이고 손짓을 많이 한다. 그러나 구연 솜씨가 좋아 이야기 진행을 빨리하여 청중의 호응을 많이 얻었다.

4) 설화 자료

【군덕리 설화 1】

선장면 선일노인회관, 1994. 12. 17, 권민정, 이재향, 박주영 조사.

김문묵 (남, 77)

신동리 열녀 이야기, 학성산의 유래

군덕 뒤

비석을 어떻게 지었냐면은 어 인저 아닐 말루다 지금 모르지만 허물없이 얘기하겠는데 고제라고.(조사자: 예 예.) 말하자면 고제라머은 통과를 못해요. 어른애도 못 낳고. 그 양반이 고제하고도 상당히 살았어.(조사자: 예.) 말하자면 그 뭐라면 지금 시대 같으머는 나가거든(조사자: 예.) (발음불명) 아들도 못 낳고 딸도 못 나니께 나간다 이거여. 근디 이 양반이 나가지도 않고 살았어. 살아서 참 인저 고상도 많이 하다가 시동상이 이어? 인저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께 시동상을 모시고서 있었던 말이며. 그냥 뭐 그래선 저 어머니 아버지도 없이 시동상을 키워서 양자를 했었어 양자. 말하자면 아들을 삼았던 말이며. 그러해서 그 자세한 얘기를 내가 전해주고 싶은데 운만 뚫었네. 고상해 가면서 살았어.(조사자: 예.) 살아가고서 여기 저 비석거리라고 연동리 거기다 비석을 해줬어.(조사자: 예.) 글썽 그래서 그런 효자하고 열녀(청중: 그 연동 신동린데 거기 동네 이름이 열녀지, 열녀.) 지금 사람들 같으면 살지 않지.(청중: 16세 출가해 가지고 80까지 살았이니 80넘게 살았지?) (청중들 설왕설래함) 그런 열녀도 있다고.

학성산은 어찌 학성이냐 하면은 여기 진자모이라고 있어.(조사자: 진자목?) 진자모이 진자모이(조사자: 예.) 진자모이서 막 파니께(조사자: 예.) 인저 산소를 드릴라고. 나도 옛날 어른들 얘기 듣고 하는 거지 내가 봤어 뭐했어. 이 함박만한 독이 여기 있더라.(조사자: 예.) 그서 지관이 하는 말이 이걸 떠들지 말아라. 그러니께 산 저기가 진자모이라고 여기 있어, 선장동에. 그에 인제 함박만한 독이 이렇게 신체를 넣을라고 함박만한 독이 요렇게 있는데 그 독을 그냥 지관이 하는 얘기가 그 떠들지 말고 그냥 거기다 모셔라 하니까 상주가 그렇게 아니여. 묘 파보니께 도기가 함박만한 게 있으니께 이거를 신체로다가 인저 쓰잖알라고 독을 다 말하자면 “우리 아버지 쓸거냐? 그걸 빼내라.”고.(조사자: 예.) 그런데 지관이 “절대로 그것 빼면 안 된다. 거기다 모셔라.” 그랬거든. 그러니께 상저 상 상제가 그렇게 하니께 어떻게 할 수 없지. 그걸 떠드니께 학이 세 마리 날랐다 이거여, 학이 거기서. 옛날 얘기여. (조사자: 예.) 내가 보길 했어 뭐 했어? 그래서 학이 시 마리 딱 날랐는데 학이 어디로 갔냐면은 학성산에 하나 앉고(조사자: 예.) 예영산 예영산에 앉고 저개산에 앉았다는 기여. 학이 시 마리가 날아서 그래서 학성산이라고 거기다 이름을 지었잖아, 그지. 옛날에 천지 개벽할 때 비가 많이 오잖았어. 그런디 인저 저 비가 막 천지 개벽할 때 막 오니께 도고산이라는 도고통만케 나안고 예영산은 산불이 많게.(조사자: 예.) 물이 차서 남아서 거기는 인저 상산이라 그라고 여긴 도고산이라 하고 여기 부영산이라고 있어, 여기 또 우리게 앞이 부영산. 거기는 부영이가 딱 앉아서 울기 땀에 부영산이라 그러고. 개산은 개만치 남아서 개산이여. 그게 다 옛날 얘기지.

【군덕리 설화 2】

선장면 군덕리 노인회관, 1994. 12. 17. 이재향, 권민정, 박주영 조사.

김영일 (남, 74)

토정 이지함과 생물, 소 타고 다닌 맹사성, 어사 박문수와 임금,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

토정 이지함 선생이 (조사자: 예.) 애 지금은 영인면 거기가 옛날엔 아산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거기가 아산현이여. 아산현감으로 와 있는데 그 낭반이 토정비결을 맨들은 분이여.(조사자: 예.) 아산 현감으로 있을 적에 날마다 그 생지네를 즙을 맨들어 가지고 먹어 (조사자: 어, 예.) 그런데 그것이 뭐이나 하면 먹는 디가 아산군 뒤로 오면 아산에 새로운 뒷산 있거든. 높은 산 (조사자: 예.) 그 꼭대기에 올라와가가지구선 생지네를 지네즙을 맨들어 먹거든. 근데 그 낭반이 거기 올라오는 이유는 생지네즙을 먹는 니유도 있거니와 그 낭반말이 혼자 아는 거기 금항아리가 있어 (조사자: 금 항아리요? 예.) 날마다 그거를 한번 드려다 보고 지네즙을 먹고 내려가.(조사자: 예.) 그 매일 그럭 하는데 거기 인제 따르는 아전 종놈이 하나 있을 꺼 아니여. 따라대니면서 그런거 저런거 심부름 해주고 그 인제 아전이 만날 그 쫓아와가지구서는 지네즙을 해 놓으려는 꼭 생밤을 하나 깎아 먹어야 되여. 그래야 독을 없애가지구서는 사람이 죽지 않고 괜찮거든. 그래서 생밤을 그 아전이 깎아서 이렇게 받쳐. 매일 와서 보니까는 꼭 한가운데 들여다보는 데가 있는데 이거 궁궁해 죽겠다 이런 얘기야, 아전이. 그래서 하루는 아전이 그걸을 잘 살펴보니까 뭘 거 이상하게 이거 분명히 있거든. 그래 살그마닌 거기를 몰래 한 번 들여다봤어, 이거만한 큰 항아리가 있어. (조사자: 어 예.) 그래서 아전이 욕심을 품은 거지. 내가 저 아산 현감을 저기 죽이면 말이지 저 금항아리는 내꺼다. 욕심이 생겼어. 그래서 하루는 또 놀러와서 지네즙을 해 먹는데 거기까지 다 먹고는 반드시 생를 생밤을 깎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 아전이 그 날은 생밤을 깎아준 게 아니라 그 때 인제 봄이니까 연한 버드나무를 깎아가지구 밤처럼 깎아가지고 줬다 이런 얘기여. 그게 안 맥힐 것 아니여, 딱딱해서.(조사자: 예.) 그래 그걸 못 먹고서는 아산현감이 죽었거든 (조사자: 아.) 그 토정비결을 맨들고 그 낭반이 참말 지리관계니 뭐 여러 가지 세상도 잘 이렇게 아는 분이데 (조사자: 네) 자기가 생밤을 먹지 못하고 생 거저 버드나무 그거를 먹고선 결국은 죽는 그 시간을 그거를 제대로 몰랐다 이런 얘기여. 나 그거밖에 몰라.

그 낭반이 저저 배방면 중리라고 있거든 (조사자: 예 예.) 거기가 고향인데 (조사자: 네.) 거기 저 땡씨들이 그 낭반 자손이여 거 가면 땡씨가 많거든.(조사자: 네.) 그 분이 땡정승이라고 해 가지고 황소타고 다닌 정승이거든. 아주 청렴결백하고 유명한 정승인데 (조사자: 예.) 서울을 인제 올라갈 적에도 황소 타고 가고 내려올 적에도 황소 타고 내려오고 그 인제 거기서 인제 영의 영의정을 지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지. (조사자: 예.) 근걸¹⁾ 했으니까, 항상 고향에 올 수는 없었고 어땡하다가 내려올 적에는 황소 타고 와. 그래서 인제 그 정승이 고향에 내려온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 중간 중간에 원님들이 많이 있을 꺼 아니여. 수원같은 데는 그런 뭘 뭘이 있고 평택, 천안 뭘 현감이니 무슨 원님을 죽 있는 데거든. 그 낭반들이 정승이 지나가니까 마중도 나와야 하고 와서 환송도 해야 할 꺼 아니야. 그거 어딘지 모르지만은 한번은 그 낭반이 고향에 가신다 하는 얘기를 듣고서 거기 저 원님들이 죽 참 나서서 원님이 나시니까 거기 저 같이 있는 직원들 아전들 뭘 고을 유명한 사람들 뭘 이런 분들이 죽 항길에서 나서서 이저 지켜섰것어, 길목에서. 암만 지켜서 해가 떨어질 때까지 지켰어도 그 낭반이 안 내려온다, 이거여. 안 내려온 게 아니라 중간에 그 낭반은 소를 타고 가서 갔버렸거든 게 설마 정승이 무슨 놈의 소를 타고 가랴. 정승이면 적어도 그저 지금 말하면 옛날에 거 교자 타고 해가지고 국무총리쯤 되면 가마 타고 다니고 그랬잖아. 시집갈 적에 타고 땡기는 가마. 그런데 이렇게 사인교 정도는 타고 갈텐데 하며 생각을

했는데 전혀 없어. 중간에 그냥 꺼병하게 소 타고 지나가는 사람 하나밖에 없었다 말이여. 그게 맹사성 그 영감이 타고 간게라 지키고 있응께. 그 낭반은 그 낭반대로 지내가고 이견 밤새도록 지킨다고 뭐 나오나. 그렇게 청렴결백하고 했던 분인데 지금 거 배방면 중리에 가면은 그 분을 위하는 사당이 있어.(조사자: 예예.) 그 낭반이 옛날 고려의 최영 장군이라고 있지? 최영장군의 사위여 (조사자: 아 예.) 배방면 가서 물어보면 자세한 이야기가 나올 꺼야.

어사 박문수가 참 어찌나 유명했던지.(조사자: 예.) 암행어사를 출두를 했거든. 암행어사 출두하면 뭐 초목도 벌벌 떠다는 얘기. 옛날에 지금 말하면 감찰인데 감찰. 임금이 직접 (발음 불명)을 내려 가가지고서는 서울서 박문수가 암행어사 출두했을 적에 (조사자: 예.) 임금이 용상에서 내려앉아 있는데 여간해서 깜짝 놀래. 내려앉고 뭐 그럴 수가 없거든. 원체 유명한 암행어사였는지 몰 깜짝 놀라 용상에서 털푸덕 내려앉았다는 거여.

그 낭반이 여기 출신이지만 원래는 서울서 살았거든, 그 분도.(조사자: 예.) (청중: 아산 출생이, 그러면 출생지는 아산 출신이여?) 출생지가 서울(청중: 서울이라는 말이 있었지, 서울.)이라는 말이 있어. 아산에 와가지구 인제 그 분이 공부를 계속 하셨겠지마는 과거시험을 봐서 항상 떨어지구 떨어지구 그래 늦게서 과거에 합격을 했거든.(조사자: 예.) 합격한 것이 인제 무과, 지금으로는 말하면 군대지. 문과가 아니고 무과에 합격을 해가지구 출세의 길을 올랐는데 상당히 늦게 됐기 때문에 출세도 늦을 수밖에 없었지. 그러다가 인제 전라좌수사로 처음에 가가지구 그라구서 인제 임진왜란이 인저 나가지구 거기서 인제 거북선을 맨들어서 장넛 사람하고 싸울라면은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걸 연구해 가지구 싸웠어. 이순신 장군은 저쪽에서 일본 배 두루오는 데를 거북선으로 상대를 해 가지고 또 전략을 굉장히 좋거든. (조사자: 예.) 그레가지고 싸울 적마두 그 판을 육지에서 저 위 서울로 막 저 이북까지 밀고 가는데 거기서 승리를 계속해서 했었어. 그 일본 사람들이 그 군수물자 날으는 그 군대 날으는 소송들을 끝없이 받아야지.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다 나중에 이쪽에 인제 경상 우수사로 원균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순신 장군보다 선배거든.(조사자: 예.) 그 인저 그 분은 싸우다가 결국은 패망을 해 버렸어. (조사자: 예.) 나라에서 이순신 장군만이 그렇게 잘 하고 이기고 그러니까 결국 저 전라도 경상도 합동해 가지구 지금 말하지만 총연합 사령관 격인 인제 전라 좌우 통제 삼라 벼슬을 쫓단 말이야.(조사자: 예.) 이제 말하면 그게 해군 연합사령관 벼슬을 한 거, 지금으로 말하면. 그레가지구 죽 싸워 나가다가 중간에 모함에 의해 가지구서는 거기서 인제 죄수에 물리게 되고 서울로 압송을 당해. (조사자: 예.) 그런데 그렇다면 해전을 해도 당하지를 못해. 그땐 저 원균이가 다시 총사령관이 되가지고선 하는데 해전을 해도 맨날 저, 일본놈들한테. 배도 전부 뺏기고 불태우고. 그래서 막을 도리가 없구, 인저 그랴단 말이여. (조사자: 예.) 이쪽에는 이순신은 서울 올라와 가지고 모진 고문을 받아 가면서 에 결국은 나갔는데 죽게 됐다 이런 얘기여. 근데 그때 당시에 영의정으로 있는 유성룡이라는 분이 이순신 장군을 상당히 애겼어.(조사자: 예.) 그레가지구 그 사람이 인자 장래 큰 사람이 될텐데 이 사람을 (발음불명) 살려 내가지고 내보내되 너는 직책을 하나두 안 주고 백의종군해라. 회옷을 입고 그대로 그냥 군대 생활을 해라, 그 말이여. 지위도 하나도 없이 평균대지. 그러구서 인저 다시 글루 내려가는 도중에 그 때 인제 여기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돌아가셨어도 거기도 오지도 못하구(발음불명)

그래가지구 나중에 다시 총사령관을 또 맡았지.(조사자: 예.) 그 때 배가 뭐 불과 몇 척밖에 안 됐어. 그래가지구서는 다시 인제 훈련시키고 해 가지구선 또 인제 싸울 적마다 전부 이겨, 계속해서. 그래다가 최근까지 이겼는데 인제 일본놈들이 후퇴할 무렵해가지고 그때 가지구서는 최후 싸움을 할 그때 그 총탄을 맞아가지구서 배에서 쓰러진 거여. 배에서 쓰러지면서 아들을 보고 내가 죽었다는 말 한 마디 하지 말고 니가 대신 내 옷을 입고서 지휘를 해라. 저기 내가 죽은 줄 알으면 댐빌테니께 내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걸로 하구선 계속해서 해라. 그래서 그 싸움 결국 아들이 이겨가지구 인제 그것이 인제 끝난 거지. 그래가지구 그 후로 벼슬을 많이 인제 그 후 임금이 다시 역사를 드러다 보고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없었더라는 대강 그 조선땅이라는 것은 일본놈한테 깃뺏혔을텐데 그걸 면하게 됐으니깐 더 훌륭한 벼슬을 줘야 한다해 가지구 차차차차 해서 충무공이라는 벼슬을 벼슬이, 뭐 그 취소된 것도 보면 영의정 벼슬도 취소가 되고 높은 벼슬도 취소…….

선장면 군덕리 노인 회관, 1996. 12. 17. 김선희, 서원기, 강미정, 박재형 조사.

김영일 (남, 76)

효자·효부 이야기

군덕, 장곳, 대정 앞

옛날에 말이지.(조사자: 예.) 옛날 저 고려시절인가 봐, 아마. (조사자: 예.) 고려장에 대한 얘길 할텐게.(조사자: 예.) 그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만 차면은 산 채로 그냥 갖다가 묻었어.(조사자: 예.) 그걸을 고려장이라 그러는데.(조사자: 예.) 고려시절에 있었지.(조사자: 예.) 한 산 농촌에 딱 어느 늙으신 어머니 한 분 모시고 두 내외하고 아들 하나 이렇게 네 식구 사는데(조사자: 예.) 그 아들이 아들하고 며느리가 효자·효부여. (조사자: 예.) 그저 산에 가서 나무해다 팔아가지구서는 꼭 어머니가 잡수실 고기니 생선이니 이런 것 구해 가지고 와서 꼭 드리구 그러거든.(조사자: 아~.) 그니께 효자지. (조사자: 예.) 그 그것을 또 해주는 그 부인도 효부가 되는 거지. (조사자: 예.) 근데 그걸 전부 해가지구 밥상에 이렇게 놓아가 인제 차려서 대접하느라고 이렇게 드리므는 그 꼭 손주가 (조사자: 예.) 하나가 있으니까 그 할머니 손주가 귀여울 거 아니여? (조사자: 예.) 안 잡숫고, 계속 손주만 맥이네. (조사자: 아~.) 그럼 이 어머니를 봉양할려구 참 그 나무를 해 팔어가 이렇게 해다가 주면은 시어머니가 안 잡수시고 꼭 손주만 먹이는데, 이 손주가 읊어야만 할머니가 잘 잡숫고 저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거덩? (조사자: 예.) 그니께 하루는 두 내외가 상의를 했어. 개 땀에 도저히 할머니 봉양이 안 되니 (조사자: 예.) 개 우리 아들을 저기 없애고 말읍시다. (조사자: 예.) 이렇게 (조사자: 자기 자식을요?) 이렇게 효도를 위해서 자식을 희생시킨다는 얘가지. (조사자: 예.) (코 훌쩍) 그 두 내외가 상의가 이루어졌어. 그렇게 하자. (조사자: 예.) 자식은 이 담에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또 낳으면 자식이니께. (조사자: 응.) 할머니야 저 한 분 돌아가시면 그만인 게고 그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구서는 하루 저녁에는 지게에다가 저 아들을 태워 가지고 두 내외가 저 저 산으로 가는 거. 곡괭이 들고 인제 팔 걸. 저물었는데 지게 탄 애가 내려달라 그러거든? (조사자: 예.) 왜 그러느냐니께 “쉬 마렵다.”고. 이 어땡해 죽일 땐 죽이더라도 또 오줌은 뉘어야지 그러니까 내려왔어. 내려 놓구서는 애가 인저 쉬를 전부 하고 나서 애도 눈치를 쬔지. 아버지 어머니 나를 물어래면은 더 올라갈 것 없이 여기 이 나 오줌 눈 자리다 파구서 물어달라구. (조사자: 예.) 그 사실은 더 올라가자니 어렵고 그 뭐 어린애 하나 파 묻는데 그 뭐 명당 찾을 필요도 없는거구. “그래, 그러믄

니가 니가 들어갈 자리 니가 선정했으께 니가 말하는 대로 하마.”(조사자: 응.) 그렇게 결정을 한 후 그 파는 거여. (조사자: 예.) 한참을 파고 났는데 뭐가 소리가 이게 찍으머는 이상한 소리가 나거덩. (조사자: 예.) 종소리가 나와, 소리가 나. 둥둥하고 이렇게 슬 이상하다. 그레가지구선 그걸 세게 안 찍으고 인저 굵은 거여. 뭐가 있나하구. (조사자: 예.) 궁가 그걸 한 편에서 보니까 저 종이 하나가 나와. (조사자: 종ियो?) 응. 둥둥 이만한 종이. 둥으로 맨든 동종. (조사자: 예.) 그 놈을 파가지구선 보니까 참 종인데 뭐 소리도 잘나고 뭐 둥으로 맨들었는디 값비싼 거여. 그 때 동종이라는 게 흔하지도 않았어. (조사자: 예.) 그니께 점점 이상하다. 이거 애 묻는 걸랑은 요 다음으로 하고 이것으로 작업 끝나구선 종 그냥 가지구 내려가지구 그래. (조사자: 예.) 어린애를 안구서 그 종을 파가지구선 지게에다 걸머지고 내려왔어. 이제 두 내외가 이제 상의하는데 이 종을 어떻하느냐. (조사자: 예.) 이거 관에다가 신고를 해야지 어떡하느냐 이말이야. 신고를 안 했다가 (흠흠) 나중에 발객이²⁾ 들은 경우면은 ‘너 어디서 이 종 훔쳐 왔느냐?’ 도둑놈으로 몰으면 꼼짝 못하고 당할 거 아니냐.(조사자: 예.) 그래 그 이튿날 그 놈을 걸머지구선 관으로 찾아간 거여.(조사자: 예.) 그 때 원님한테 찾아간 거지. (조사자: 예.) 찾아가가지구선 그 동안 사실 얘기를 죽 원님한테 허구선 그래 이걸 원님한테 여기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 원님이 가만히 보니까 참 효자·효부 그 그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가륵하거덩. (조사자: 예.) 응. 이 참 뛰어난 효자·효부로구나. (조사자: 예.) 앞으로 그 어린애도 애도 죽이지 말고 그냥 키우고 그 대신 내가 이 종은 인저 관에서 인수하고 그 대신 종갑이 아니라 너희들 살림을 이렇게 하도록끔 마련을 대 줄테니까 계속해서 효자·효부가 돼라. (조사자: 아~.) 그렇게 해가지구선 내보내더래. (조사자: 예.) 그 내보낸 뒤에 그냥 쌀이니 뭐니 그냥 막 실어 보내가지구 별안간 부자가 됐거덩. 그래서 끝끝내 그 애는 살리고 어머니한테는 이제 끝내 효도를 완전히 마쳤다는 얘기여. (조사자: 예~.)

【군덕리 설화 3】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선일 노인회관. 1994. 12. 17.,권민정, 이재향, 박주영 조사.

박종옥 (남, 75)

죽림의 혼

군덕 뒤

저 경상도 전라도 가면 말이여, 잉? 옛날에 큰길 있는데 길 있는데, 세 갈래 길이 따라 삼남 대로라고 말이야 (조사자: 예.) 제목은 뭐고 하니 죽림의 혼, 죽림의 혼. 대나무 발 응? 대나무발의 혼이라 그 말이야,잉? 죽림의 혼 대나무발에 귀신이 있다 이거야. 귀신이 있는데 오래 되서 이름이라든지 그 지역 같은 거 충분히 알았었는디 전부 잊어먹고 삼남대로에 커다란 길인데 거기 가운데 가서 경상도 갈라 먹어 전라북도 갈아 먹어 경북 갈라먹? 저 경남, 경북, 전남으로 해서 삼남대로라고 해가지고 큰 도로가 있는데 죽림의 혼이라 그래서 혼이 백혀기지. 그 도로에 사람이 땡기질 못했어.(조사자: 예.) 사람이 들어가기만 하면 혼이 말이지(조사자: 예.) “못 간다.” 해가지구선 들어서면 말이야 들어서면 통행을 못 하게 한다 이기야.(조사자: 예.) 통행을 못하게 한다 그 (발음불명) 대나무발에 그 대나무발에 그 뭐여 그 뭐 깎아주고 그러는 초막 초막이 있는데 초막에 가서 그 그 원한이 뭐냐 하는 데서 일반 그 국민이 들어가가지고서 말이야, 잉? 들어가가지구서 얘기하는데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간다 해더라도 예고 읍시 말이야 그냥 지나 갈라고 한다든지 하면 가지 못하게 해여. 불어댕

겨 가지고(조사자: 예.) 그에 거기서 얘기가 이그 원한이 뭐냐 하는 디서 물어니까, 그 처녀 적에 말이지(조사자: 예.) 억울하게 당한 일을 말이야, 잉? (조사자: 예.) 당하게 당하 당해서 땀에 원한이 되가지구서 귀신이 되가지고서래도 그런 것을 문제로 해결해주는 사람이 있 올라나 해서 거기다가 (발음불명)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어. 얘기한 게다(발음불명) 원한이 뭐냐 얘기 하니까, 색시가 됐든지 간에 이런 입장에서 있을 때 너무 그 대나무 밭에서 억울한 변을 당해가지구서 세상에다 알리기 위해서 내 영혼이 일렀다 이런 얘기에. 그게 그래 되가지구 그 길로 별짓을 다 하구 다 하구 몇 번 당한 일이 있어서 아무도 어디로 갈 것 같으면 보통 사람이 살구서 말이야. 이 사람이 제일 자기의 일 하나의 조건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조사자: 예.) 조건이 된다 이래가지구 그 사람은 상제해 가지고 일반은 모르는 건데 귀신은 저 원인을 가는 사람인데³⁾ 얘기에 보라고 그 사람을 말이어 그 사람도 지금 동화리(발음불명) 어디 있는데 업고 고 가서 초막에다가 내려놓은게 이 사람이 스스로 말이어. 자기 죄상이 있으니까 죽게된다 이런 얘기에. 죽어가지고서 그 앞에다가 놔가지구서 세상사람들한테 알렸거든. 알려져 그 문제가 해결다는 거여.

【군덕리 설화 4】

선장면 군덕리 노인회관, 1994. 12. 17, 권민정, 이재향, 박주영 조사.

정옥산 (남, 73)

도깨비와의 씨름

군덕 앞

그저 선장면 신문리하고 가신리하고 그렇게 요렇게 있어.(조사자: 아, 신문리하고 가산리하고.) 떨어져 있어. 신문리 정서방이라는 분이 가산리로다가 공부를 하고 오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가산리서 신문리는 얼마가 되냐면 1500야드 정도 될 꺼. 그 중간에서 남 남자놈은 장승같은 키가 무참히 커가지고서 자 오늘은 너하고 나하고 씨름을 좀 해보자.(조사자: 어~.) 그래서 키는 커도 이 몸은 약하더라 그제여. 그서 오에다를 감고서 뉘어 뜨려놓고서는 뭘로 했냐면은 그 새내끼⁴⁾를 주서다가 묶어놔단 말이어.(조사자: 예.) 어 묶어 놓고서 흙을 벽돌장을 벽돌 힘이 그 이제 쉐이지 벽별장을 뽑아다 꼭 눌러놔어. 아 눌러 놓고 그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까 큰 늪의 빗자루 몽둥이다가(조사자: 어~.) 피칠해가지고서 쓸다가 거기다 집어 내분⁵⁾ 것이 그것이 (청중: 도깨비란 얘기여?)

선장면 군덕리 노인회관, 1996. 12. 17., 김선희, 서원기, 강미정, 박재형 조사.

정옥산 (남, 75)

도깨비 이야기

군덕, 장곳, 대정 앞

지금으로부터(조사자: 예.) 42년 전에 (조사자: 예.)한 동네 사람이 (조사자: 예.) 이케 신곡리 사람이 가산리로다가 불일을 보러 갔었다.(조사자: 신곡리 사람이 가산리로요?) 예, 그래서 가산리서(조사자: 예.) 불일을 보고서 밤 11시에 왔단 말이어.(조사자: 예.) 11시에 오는 도중에 그러믄 거기서 그 간격이 얼마큼 되느냐면은 예 2마장 정도 된다 말이어.(조사자: 2

마장이요?) 잉, 2마장 정도가 된 간격이여. (조사자: 예, 먼 거예요, 할아버지?) 응? (조사자: 먼 거예요?) 먼 거야, 그치 먼거지. 2마장이면 멀지.(조사자: 예.) 5리니께.(조사자: 예, 5리요.) 잉. 그 5리 사이에 중간에 오다가 난데없는 뭐가 하나가 툭 나타났어. (조사자: 예.) 근데 장성이 나타났어 장성이. (조사자: 장승이요?)그게 무슨 장성이냐 나타나면서 뭐라 그러느냐 “나하고 씨름을 한 번 하자.” (조사자: 아~.) 그러면은 “그럼, 하자.” (조사자: 어~.) 그래 씨름을 허구서 그 씨름허구 이겨가지구 (조사자: 예.) 그 풀루다가 묶어놔단 말이여. (조사자: 아~.) 이렇게 맨사람. (조사자: 그 사람이 이겼어요? 장승을요?) 응 이겼어. (조사자: 예.) 응 이겨 가지고 풀에다 묶어 가지고 (조사자: 예.) 꿈쩍 못하게 맹글어 논 다음에 (조사자: 예.) 그 이튿날 다시 가봤어. (조사자: 예.) 다시 갔더니 뭐가 됐는고 하니, 순전한 빗자리 몽덩이에다가 피 묻힌 것이 이렇게 되가지고 도깨비가 됐어. (조사자: 아 도깨비요? 그러면…….) 어어. (조사자: 그럼, 도깨비에게 홀린 거예요, 할아버지?) 응. 그렇지. 도깨비가 장승이 됐지. 둔갑을 해 가지고. 응. (조사자: 아.) 그래서 그 사람이 장 장력이 세가지고 이겨 승리해갖고, 한 65세 되. (조사자: 아, 실제 있었던 얘기에요, 할아버지?) 그렇지. 실제 있던 거여.

【군덕리 설화 5】

선장면 군덕리 노인 회관, 1994. 12. 17. 이재향, 권민정, 박주영 조사.

최용운(남, 71)

어리석은 원님과 현명한 부인, 이지함과 소금장수

군덕 앞

옛날 원님 하나가 왔는데 곤산리 군골 한가지야. 왔는디, 대경이로 와서 아무 것도 몰러. 물론 사람이 왔어. 그런데 마누라만 똑똑이야. 그 얼마 있느란게 어떤 봉사가 왔, 들어왔어. 한 사람이 와서 소를 죽였는데(조사자: 예.) 위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니께 어떻게 하긴 도리가 없거든. 자기가 그 공사를 할 수가 없거 이제 그러니께 마누라한테 가서 아이고 어떤 사람이 자기네 소를 죽였다고 왔니니 저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께 “아이고, 여보 그걸 몰루냐?”고. 가죽은 뱃겨서 나라로 받치고 피기는 팔아서 한 끼라도 연명하라고(조사자: 예.) 게 그렇게 보냈단 말이여. 그런데 한 사람이 또 오기를 무엇 때문이냐면 지 아버지가 죽어서 왔어.(조사자: 예.) 게 아무 것도 없은게 무엇 좀 달라고 온 거여. 말하자면 원님한테 왔는디 아 마누라한테 또 가 물어봤으면 괜찮을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한다는 소리가 아 이 자식아 거 뭘 걱정하고 있냐. 가죽은 뱃겨서 나라에 받치고서 피기는 팔아서 한 끼나 연명하라 했단 말이여. 저녁에 들어가서 마누라보고 나 오늘 공사 또 하나 했어. 무슨 공사 그러이께 아 저 아비 죽었다고 하길래 어떻했어 그래. 아 가죽은 베껴서 일루 가져오라하고 피기는 팔아서 한 끼라도 연명하라고 했다고. 아 마누라가 보니께 큰일 났거든. 싸게 가야지 거기 있단 큰일 났어. 그런데 봄샌디 그 이튿날 하인들이 워디 가는데 사륜꼴 타고 다녔어, 옛날에는. 사륜꼴을 가지고 길가로 안 가고 보리밭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 “야, 이놈들아 그래도 그런 건 알 건데 왜 질건로 안가고 보리밭으로 왔다갔다 하나?” 그러니께 아이고 원님이 이리로 다니면 보리가 잘 된다고 그라 그라거던. 그러면 돌아댕겨라. 저녁이 가서 자기 마누라한테 나는 가는데 그 하인들이 날 메구선 보리밭을 땡기는데 내가 그리 땡기면은 보리가 잘 된다고, 여보 싸게 감시다. 똥장군이냐 보리밭이면 잘 되지 사람이 땡겨, 당신

이 똥장군 취급한겨. 얼른 가자고 보리썩 다 샀데.

그전이 어른 들으면 그랬다. 이 아산 공부리가 거기가 원 사람사는 데가 욱지였었는데 그것이 바다로 다 되게 된 거는 토정 선생님이 알았다 이거여. 그래 날 좋은 날 가갔구 전부 피난을 시켜 거기를 (조사자: 예.) 그런께 멀쩡한 날,미친 사람일 꺼 아니여. 원님이 아니라 아무나 가서 하더라도(조사자: 예.) 멀쩡한 날 여기가 해일이 저서 다 절단나니까 저기로 가거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께 자기 혼저 산에 가서 앉겠는 겨. 물들어 올 때까지. 그런데 어떤 소금장사가 소금을 끓여지고 오더니 작대기다 받쳐 놓고선 요령기 앉았거든. 아 여보 거기 물들어 오는데 왜 여거 와 거기 앉았냐구. 저기 올라가 앉지. 당신이나 올라 갈래면 올라가라고 그래더랴. 게 조금 있다가 해일이 들어오는데 소금 장사 작대기 밑에까지 나가더라. 그러니까 작대기 밑에까지 나가더라. 그러니까 소금장수가 자기보다 더 알았다는 거지.

선장면 군덕리 노인 회관, 1996. 12. 17. 김선희, 서원기, 강미정, 박제형 조사.

최용운(남, 73)

지혜로운 아들 이야기.

군덕, 장곶, 대정 앞

옛날에 (조사자: 예, 옛날에.) 응. 영감들이 그 임금님 밑에 신하들이 그지 저기가 있잖아 대신들이. (조사자: 예.) 대신이 있는데 어쩐 대신 집이 대신 하나를 대신에서 내쫓을라고 (조사자: 어~.) 임금님하고 모의를 했어. (조사자: 예.) 저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미웁게 해서 내쫓자. (조사자: 음~.) 그림 어떻게 할나냐? 신하들 보라니께 시방마냥 이렇게 추운 겨. 눈이 하얗게 왔는디. (조사자: 예.) 명석딸기를 따 갖고 오라 그랬어. 내일 들어올 적에 조회에 들어올 죽이 (조사자: 예.) 명석딸기를 따 갖고 들어오라. (조사자: 명석딸기요?) 잉. (조사자: 그게 뭐예요, 할아버지?) 명석딸기라고 여름철에 있는 딸기, 산에 가면 있는 게 있어. 요만하게 딸금씩 있는 거. (조사자: 예예.) 그걸 따와라 거거여. 그니 눈 있는데 그게 워뎀어. (조사자: 예.) 그 사람 죽일려고 저기한 것밖에 더 되여? 모의한 거? (조사자: 예.) 그래 그걸 아무 날꺼정 따오라고 임금님이 명령을 했어. (조사자: 음.) 명령을 하고 난 위에 집에가 생각하니 눈이 허연데 명석딸기를 어디가 따느냐 그거여. (조사자: 음.) 그니 자긴 죽은 것밖에 안 된다 그러여. (조사자: 아.) 자기가 생각할 적에도 (조사자: 예.) 그래서 끔끔 앓고 드러누웠어. (조사자: 음.) 식음을 전폐하고 (조사자: 예.) 그 아들은 한 여남은 살 아들이 하나 있는데,(조사자: 예.) 아버님 왜 이러시느냐고 그 물었더만 넌 알 것 없다고 그러거덩. (조사자: 어~.) 그래가지구 인제 아주 저 아버지가 아주 죽게 그냥 굶구서 있으니께 하도 졸르니께 그제사 애길 했어. “애야, 임금님이 내일 모레쯤 되는 날인디(조사자: 응~.) 그날 자금날이 명석딸기를 따오라는디 명석딸기가 워뎀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난 인제 죽는 신세밖에 더 되냐? (조사자: 아~.) 그래서 내가 이런 저기를 한다.” 그라니께 아버님 참 그걸 뭘 그걸 갖고 걱정하시느냐 그러거덩. 아니 임마 무슨 걱정이라니 이눔아 딸기가……. “그만 두고 그 날 집에 계슈, 지가 들어갈 테니.” 그러거등. (조사자: 응~.) 그래갖고 그날 저희 아버지가 명석 따 갖고 갈 날을 개가 들어가서 들어가니께 임금님이 “왜 애비가 안 오고 니가 왔느냐?” 그라니께 한다는 소리가 “저희 아버님보고 딸기 따오랬대매요?” “그렇지.” “아 독사 딸기 따러가서 독사를 물려서 아주 정신없이 앓아있슈.” 그러거등. (조사자:

응.) 임금님이 생각하니까 동지 선달에 무슨 독사가 있어. (조사자: 어.) “예끼 놈아 요새 독사가 어딴니?” 그라니까 (조사자: 아.) “어허 임금님 아 요새 멍석딸기가 어딴슈?” 그래. 멍석딸기 왜 따래. 그러니까 그래 개한테 지더라. 그래 저희 아버지 살렸대. (조사자: 예.) 인제 고만할 겨. 안혀 허허허허. (웃음)

나. 선장면 마을 2 (대정리)

1) 조사일정

1996. 12. 17, 김선희 기록.

군덕리 노인회관에서 나와 점심을 먹고 오후 1시에 신덕리로 출발하였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신덕리 노인회관을 찾아 헤매다 힘들게 찾았으나 노인회관에는 아무도 없었다. 지나가는 아주머니에게 구연 가능자를 물었으나 이 마을에는 그럴 만한 노인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옆 마을인 장곶리 노인회관으로 2시 35분에 출발하여 50분에 도착해 보니 노인 7명이 놀이를 하고 있었다. 구연을 부탁했으나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할 수 없이 지난 답사 때 구연해 준 조병협 씨를 찾아가 <박어사 이야기>를 들었고, 3시 40분에 인근 마을인 대정리로 출발하여 노인회관을 찾아갔다. 그러나 이 노인회관에서도 노인들은 구연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역시 지난 답사 때 구연해 준 진운하 씨를 찾아가 <할아버지 버릇 고친 이야기>를 듣고, 4시 40분에 숙소로 돌아왔다.

2) 마을개관

【선장면 마을 2】

336-890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대정리.

1994. 12. 18, 이재향 조사

자연 부락의 이름이 ‘안산뜸 노루지’인 대정리는 남녀 비율이 109 대 125정도이며 총 74세대가 산다. 대부분의 주민이 논농사를 하며 돼지나 소도 조금 키운다. 신정분교라는 국민학교가 하나 있으며 농협분서도 하나 있다. 과반수가 기독교를 믿으며 천주교와 불교는 일부의 주민이 믿는다. 전하는 민속행사는 없으며 상점도 거의 없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모습을 하고 있다.

1996. 12. 17, 서원기 조사

자연부락 명칭이 ‘아산 노루지’인데, 노루지는 허허벌판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옛날에 아산 군이었을 때, 집도 없는 허허벌판이어서 아산 노루지라고 불렀다고 한다. 주민은 54세대 200여 명 정도된다고 한다. 논농사를 주로 하고 가축을 기르는데 개, 토끼, 염소 등 다양하

다. 특히 강아지가 많아서 개 짖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시끄러울 정도로 많이 들렸다. 학교는 신정초등학교, 선도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는 온양이나 예산으로 나가야 한다. 감리교회가 하나 있고 약국이 간판 없이 하나 있었다. 아담한 옛날 시골동네 모습 그대로였다. 명절엔 특별히 하는 행사가 없고, 전에는 윷놀이나 노래자랑 정도 했다고 한다.

3) 구연자

【대정리 구연자 1】

아산시 선장면 대정리 199번지, 진운하(陳雲夏), 남, 75.

1994. 12. 18, 박주영 조사.

코가 오뎅하고 쌍꺼풀이 있으며 대체로 얼굴은 작은 편이고 주름이 많고 깊이 패었다. 머리가 하얗게 탈색이 됐다. 소리를 크게 지르고 손뼉을 치거나 손으로 방바닥을 내려치기도 한다. 구연 당시 청중들은 잘 듣지 않는 편이고 TV를 시청하거나 전화를 걸어 구연에 영향을 미쳤다. 자신의 이야기에 자신이 있고 스스로 재미있어 한다. 사물을 즐겁고 낙천적으로 보고 있었다. <기억력 좋은 할아버지>를 구연해 주었다.

아산시 선장면 대정리 199번지, 진운하(陳雲夏), 남, 77.

1996. 12. 17, 박재형 조사.

학교는 초등학교까지 다녔으며, 줄곧 농사를 짓고 살았다. 이 마을에는 3대째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머리가 반백이고 눈이 맑고 코가 오뎅하다. 말끝을 길게 끄는 습관이 있었다. <할아버지 버릇고친 이야기>를 해 주었다.

4) 설화 자료

【대정리 설화 1】

선장면 대정리 노인정, 1994. 12. 18., 권민정, 이재향, 박주영 조사

진운하 (남, 75)

기억력 좋은 할아버지

대정, 장곳 앞

옛날에 한 사람이 (조사자: 옛날에 한 사람이요.) 응, (조사자: 예.) 머리가 하도 좋아서(조사자: 예.) 잉, 말로 하머는 누구네가 오늘 저녁에 누구의 생일이고 (조사자: 예.) 누구의 (조사자: 예.) 잉, 누구의 지사⁶⁾다 (조사자: 예.) 이걸 알더려. (조사자: 예.) 그 노인 양반이 (조사자: 예.) 그래서 이때쯤 되서 하루 한 때 (조사자: 예.) 부락 청년들이 그랬더. 모여 앉아서 야 아무게 할아버지가 실지가 머리가 좋은가 안 좋은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조사자: 허 네에). 해가지구서 했쎄. 그 뭐 어떡할래? 뭐를 테스트 해보니 오늘 저녁기이 부근 전부

그러키 해서 지사집이 있니없니 그걸 알아 보자. 그라더라는 기여. (조사자: 예). 그래 저 놈들이 아무리 앉아서 생각해도 지사집이 없더려. (조사자: 예). 그래서 대개 우리네 지사가 열두 시 지나야 지살 지내거든. (조사자: 예). 근디 열두시 지나서 인지 청년들이 집이 가서 잘 무렵이 그 할아버지네 집에 가서 깨웠더. (조사자: 예). “할아버지, 할아버지!”하니께 자더려. (조사자: 예). 그래 그 “아무게 할아버지!” 그랬다네. “아무게 할아버지 왜 왜 찾니?” 그라니께 “저, 할아버지 저기서 아무게네서 도루 오시레유.” 그라더라는 그려. (조사자: 예.)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불을 켜가지고서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저녁기 지사 없는디 이상하더라는 그려. 응 설마 청년들이 나이 많이 먹은 노인네 거짓말 할 리는 없다 말여. (조사자: 네.) 이제 한번 동네를 옷을 잔뜩 입고 한 바쿠 돌았더. (조사자: 예.) 그러믄 그 지살 지낼라믄 전깃불이 있, 있을 꺼 아녀? (조사자: 예.) 흰하니 근디 전부 깜깜하더라는구려. (조사자: 아.) 근디 이상하다 그런디 조끔저 거시기 고개 넘어 외판집이 있는디 (조사자: 예.) 그 집빠긴⁷⁾ 읍더려. (조사자: 예). 그리 이렇게 고갯 넘으니께 불이 뽀쩍뽀쩍 허더러는겨. (조사자: 아.)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아구 땀다 그랬다는구려. 아, 그래서 가본께 조용하더려. 지사잡이므는 뭇들 음식을 먹다던지 사랑방이를 모여 앉을텐디 (조사자: 예.) 아, 조용하더라. 아, 그래서 지침을 콕 하고선 들어가니께 아, 그 안 아주머니가 아주 반가하더라. 이 밤중에 아, 아무게 할아버지가 웬일이시냐고 말이여. (조사자: 아~.) 그래 가본께 그 백깻⁸⁾ 남자는 시장에 가서 안 오고 (조사자: 예.) 그 아주머니 혼자 있는디 어린애가 죽었어. (조사자: 헤아~.) 그래 그 할아버지 보고서 할아버지 여기서 어린애를 지키십시오. 할아버지가 아무게 아버지가 아무게 장에 갔는디 거기 장예를 가십시오. (조사자: 예.) 양단간 좀 해주쇼. 그라더라는구려. (조사자: 예.) 그러니 그거 밤중에 늙은이가 참 곤란하더라는 그여. 쓸 집을 지키잔 말도 아녀. 혼저 거길 또 혼저 갈 수두 없구, 시장에.(조사자: 예.) 되나 안 되나 집을 지킨다구 대답하구 집을 지키구서 그 고육을 치르구서는 그 뒤루는 절대 그 동네에 대한 뭇생일이니 뭇 지사니 관심을 두지 않했더. (조사자: 예.) 아주 맹세했더. (조사자: 예.) 한 그러한 노인네 얘기가 있어. (조사자: 아, 재미있네요, 할아버지 허허.)

선장면 대정리 진운하씨 집, 1996. 12. 17., 김선희, 서원기, 강미정, 박재형 조사.

진운하 (남, 77)

할아버지 버릇고친 이야기.

* 2년 전에 조사자들이 왔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어서 새로운 이야기를 구연해 줄 것을 부탁했으나 지난번에 들었던 <기억력 좋은 할아버지>와 똑같은 이 이야기를 해 주고는 다른 얘기는 없다면서 구연을 끝냈다.

군덕, 장곶, 대정 앞

옛날에 어떤 (기침) 노인 한 분이 계신디. (조사자: 예.) 아이큐가 좋은지 뇌가 좋은지 도대체 청년들이 부락 청년들이 상대를 할 수가 없더라. (조사자: 음.) 거 청년들이 하루는, “자 거 아무게 할아버지가 사실이 아이큐가 좋은 게냐, 그렇지 았으믄 음식을 너무 바라는 사람이나 (조사자: 음~.) 우리 한 번 테스트를 해보자.”하는 그런 사유가 돌았어, 청년들끼리. (조사자: 음.) 그럼 왜 그 할아버지가 그렇기 아이큐가 좋고 음식을 택하느냐하는 그것을 왜

청년들이 테스트하느고 하니 (조사자: 음.) 내가 여기 살다보든 이 근방에 거식한 누구네 오늘이 누구 생일이고 누구네 오늘이 결혼이고 (조사자: 음.) 누구네 오늘이 지사고 (조사자: 예.) 이런 걸 뭐 모르는 게 없더래. (조사자: 음.) 그래서 야 이거 참말로 이 양반이 이렇게 머리가 좋고 아이큐가 좋은 겐가 (조사자: 음.) 그렇다면 그런 걸 택해서 음식을 취하는 그러한 할아버진가 해서 청년들이 그걸 테스트를 할라구 (조사자: 아.) 하는 거지. (조사자: 음.) 그래서 뭐 어떤 (기침) 그 중에서도 청년 하나가 놀이 간 청년이지. “됐다.” “뭐가 됐어? 어떻게 테스트 해?” (조사자: 음~.) “왜 걱정 말어. 오늘 저녁이 (조사자: 음.) 이 4개 부락 이 부근에 지사고 누구네 생일이고 있나 없나 그거 한 번 전부 니들이 호호를 들어가 보자.” 그러더라고. (조사자: 응.) 그 한 열이 앉아서 그렇게 해보니까 전혀 없거던. (조사자: 예.) 그래서 야 오늘 이거 됐다. (조사자: 음.) 그 어땠할라나? 대개 지금 저 젊은 사람들은 옛날에 그 부모님이라든지 조부모님 기제사는 12시 지나야 제사를 모셨거든. (조사자: 예.)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앉아서 청년들이 놀다가 “인제 가자.” “어딜 가냐?” “할아버지 있는데 가자.” (조사자: 음.) 그래 할아버지네 가가지구서 청년들이 깨니께⁹⁾ 할아버지가 일어나 더래. (조사자: 음.) 그래 이 청년들이 누구네 뭐 성함도 대지 았고 무조건 “할아버지, (조사자: 음.) 아무게네 오늘 제사래요.” (조사자: 어~.) 그래서 (기침) 옛날에 전기가 없으니까 호롱불을 켜 놓구서는 (조사자: 음.)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했어. 오늘 저녁에 누구네 제사가 없어. (조사자: 음.) 허나 이 부락 청년들이 날보고 늙은이를 조롱거리한 그런 일은 없으니까 (조사자: 음.) 이 제사집이먼은 불이 켜 있을 테니까 (조사자: 예.) 아이 불 켜 집만 찾아가면 된다 하구서는 (조사자: 음.) 호호를 대너 땡겨. 땡겨보니 불 켜 집이 있어야지. (조사자: 음.) (발음불명) 저 등 너머 외딴 한가가 있는디 거기밖에 갈 데가 없더려. (조사자: 응.) 그 거기 간다구. (조사자: 응.) 이렇게 가서 그 가서 그 집이 뵈난 데 보니까 호롱불이 켜 있더래. (조사자: 음.) 어 이 ‘그 청년들이 거짓말을 안 했군.’ 허구 좋아서 그 집을 갔대. (조사자: 응.) 가서 문전에 가서 그 사람이 기제사라 그랬으믄 식구들이 어디 어찌된 무슨 이야기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고 한테 기척들이 전혀 없더려. (조사자: 응.) 예이 그래도 거기 간다고 문에 들어 왔으믄 험험허허흠 이렇게 (조사자: 응.) 기침하고 거식하니까 (조사자: 응.) 그 젊은 주인 아주머니가 혼저 거식하구서 아주 그 할아버지 반갑게 대해 (조사자: 어~.) 크 매알도 모르구선 들어갔어. (조사자: 음.) 거 어이고 할아버지 잘 오셨다고 어째 이렇게 할아버지가 마침 이렇게 오셨냐구. (조사자: 음.) “할아버지, 우리 애기 애기 아빠가 시장예를 샀는데 여기서는 워낙이나 이렇게 먼디 시장예를 샀는디 이적지 오질 았는디 (조사자: 응.) 우리 꼬마가 돌변해가지구서 이렇게 죽었습니다만.” (조사자: 애기가 죽었어요?) 예. (조사자: 예.) “그러니 할아버지가 이 애기를 여기서 지키실테요, 애기 아빠가 아 아무데 간 시장예 거기 가 계신디 거기를 연락을 갔다 오시오.” (조사자: 응.) 두 가지를 택하시라고. (웃음) (조사자: 아~, 할아버지를요?) 응. 하 그러니 노인네가 어떻게 밤중에 저 웅장이라는 데를 어떻게 가느냐 말이여. “아이 나 못 가니까 여기서 집이서 어린애 거시기 하고 기다릴 터.” (조사자: 음.) 그라구서는 거기서 기다리니까 참 애기 엄마가 가더니 애기 아빠를 데리고 왔어. (조사자: 응.) 그러니 그 날 저녁에 얼마나 이 할아버지가 경쳤느냔 말이여. 그래서 그 뒤로는 일절 나는 누구네 기제사니 누구네 생일이니 일절 아주 기억도 았구선 일절 땡기지 았는다구 맹세하구 그 뒤로 안 땡기더래. (조사자: 응.) 그런 할아버지가 기셨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조사자: 응.)

다. 선장면 마을 3 (신동리)

1) 조사일정

1996. 12. 17, 유정 기록.

점심 식사 후 궁평리 노인회관을 찾아갔으나 난방이 제대로 안 되어 노인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구연 가능자가 있는지 알아보았으나 적당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신동리를 향해 출발했다. 오후 1시 50분 신동리 노인회관에 도착하여 박홍규 씨에게 <진대선왕 유래>, <벼락바위 이야기>, <단각시 이야기> 등을 들었다. 다른 청중들의 무관심으로 2시 50분경 궁평리로 출발하여 3시 20분 궁평 3구에 도착했다. 그러나 시종일관 화투에만 열중하고 조사자들을 귀찮아하여 3시 40분 경 대흥리로 출발했다. 4시에 대흥리에 도착하여 노인 몇 분을 만났으나 자료적 가치가 있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 4시 30분 숙소로 향했다.

2) 마을개관

【선장면 마을 3】

336-890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신동리.

1996. 12. 17, 지명현 조사.

신동리는 돌고을이라는 뜻을 지닌 ‘석골’이라는 자연부락명을 가지고 있다. 53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논농사를 짓고 있다. 대부분 주민들이 유교적 사고를 지니고 있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 옛날에는 ‘단각시제’라는 제사를 지냈었다고 한다.

3) 구연자

【신동리 구연자 1】

아산시 선장면 신동리 1구 145번지, 박홍규, 남, 62.

1996. 12. 17, 서화일 조사.

박홍규씨는 자기 집안은 이 마을에 11대째 살고 있다고 했다. 학력은 국민학교를 졸업했으며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다. 외모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흰 얼굴에 머리가 약간 벗겨지고 이마에 굵은 주름살이 패어 있다. 쌍꺼풀이 있고 눈이 크며 눈썹이 짙고 콧대가 높다. 눈가에 잔주름이 많고 아랫니 중앙에 금니를 했다. 구연 시 손에 권 화투를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강조할 대목에서는 눈을 찡그리며 푹푹 끓어서 얘기한다. 주변을 둘러보면서 구연을 하고 “사귀에 맞게……”라는 말을 연발한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특히 계층 구분에 대하여 분개하면서 모든 사람은 단군의 자손이므로 평등하다고 강조했다.

구연시 주변이 매우 소란스러워 구연에 지장이 많았다. 구연한 이야기는 직접 조사한 것이라면서 <진대선왕의 유래>, <벼락바위 이야기>, <단각시 이야기> 등을 구연해 주었다.

4) 설화 자료

【신동리 설화 1】

선장면 신동리 노인회관, 1996. 12. 17. 유정, 서화일, 지명현 조사.

박홍규 (남, 62)

진대선왕 유래, 벼락바위 이야기, 단각시 이야기.

남성, 죽산, 신동 앞

(조사자: 예?) 진대선왕.(조사자: 진대선왕이요?) 예 (조사자: 어.)진대선왕이 있는데,(조사자: 예.) 예전에 저 창말이란 데 배가 나가지구서 배에다 세금 바치는 지금 이렇게 있지? (조사자: 예.) 현물을 가지고 갔어. 근데 배가 배가 구멍이 났는데 배가 구멍이 났네. 그놈이 거기서 받구서 죽어버렸어. 그래서 진대선왕이고 할 기여. 여기가 창말이란 것은 왜 그냐믄 불과 그 당시 거기가 호수가 지금은 백여 호가 넘어 응? 백여 호가 넘는데 예 옛날에는 지킴으로부터 한 이 백년 전만 해도 아홉 호백계, 구 혼가백계¹⁰⁾ 없었어, 이? 그러므는 조국¹¹⁾을 옛날에는 다 여 벼루 수멜 했거든?¹²⁾ (조사자: 예.) 수멜 했는데 그믄 요것이 전부 이리 모여들었어. 여기 대함 어천 창말이라고 대항리에. 여기 모여드는데 워디까지 갔냐면 사십이 개 골 충천도 권은 다 이리 모여들었어. 충천도 빼 저 아래 것도 여기가 지금 여기 와서 이제 완전히 육지가 됐지만서두. 여루 다 모여들어 가지구 여기서 다시 인천항으로 빠졌거든 응? 인천항으로 빠졌는데 그것이 지킴 여기는 으른들이나 뭐 들으믄 여기가 바다라 이르키 뭐 했는데 아 농사짓고 있는데 무슨 바다가 있어? 이 어천 창말이렌 데가 있어. 어촌이렌 것은 인저 고기 어(魚)자 아냐, 이? 창말이렌 것은 왜기냐믄 창고가 있다고 해서 창말이거든. 그런게 십이개 골에서 다 온다고 해부리면 그건 인제 엄청난 숫자 아냐? (조사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두 여기 인제 아산만해두 아산현이 요기여, 있지? 여기 온양현이 있지. 신창현이 있거든. 일개 군에 세계 현이 있었어. 여기서두 그럼 여기서두 이제 그 곡물을 이송시킬 적에 신창 이리해서 이제 저리 가게 됐어. 갔는데 그 당시 거기서 인제 실코 인천을 가게 갔다. 이렇게 배다 실쿠 인저 풍랑배라 이저 이렇기 친거 배가 이제 인천에 내려서 하역 작업을 하구 보니까 큰 구렁이가. 인제 이 구렁이는 뭐냐면 대민이라구 하믄 큰 구렁이거든. 엄청난 구렁이가 꿈내미를 이케 치구 이렇게 하구 있으니까 감히 무서워서 열썬을 못 하겠어. 근데 이누무거는 꿈작을 앓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놈이 죽었어. (조사자: 아.) 그것이 왜 그냐면 배가 구멍이 났는데 그 배를 구멍난 거를 그 놈이 막고서 요누이 있는 바람에 죽었어. 근데 그것이 읍었더라믄는 침몰됐을 거거든. 그래서 이거시 참 희귀한 일이다 해가지구, 예 그 당시에 (주위 소란)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 세종 적이여. 세종 적에 (조사자: 세종 적에.) 이 세종 적에 (조사자: 세종이요?) 이 세종대왕(조사자: 세종대왕이요?) 응 이 여기서 그냥(발음 불명) 뒤흔들더니 그것이 안 돼갔어. 사기가 안 맞아. 세종까지 올라가야 되드라고. 인제 세종대왕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이제 풍문나고 그라니까 이상하잖여.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지 그 말이. 들어갔는데 하는 뭐냐믄 이것은 희귀한 일이다. 이건 정말 하늘에서 도운 일다 해가지구 세종대왕이 해는 소리가 뭐냐 그러믄 “그 어느 골에서 왔느냐? 그 골에 갔다 장례를 잘 피셔라.” 가가지구 공단을 지금은 공단이라구 그래믄 별거 아니지만 옛날이레믄 한 사오십 년 전만 해두 공단만 대단했거든 응? 실크 이렇게 되

가지구 째 이? (조사자: 예.) 이거루 그거를 두 필을 쥐가지고 (조사자: 예.) 그놈을 여 싸가지구 이 내려온 내려온 거라 왔는데가 현감한테 보골 해야지 지방장관한테 보골 해야할 거 아녀. 산 너머야 그 자리가 있어, 고 자리가. 고기가 하두 인저 무거우니까 여 옛날값으론 가마래는 거 있잖여, 이르키. 잉? 메구 네 사람이 메구 오다가 무거우서 여기 자꾸 섰다 가자 했는데 쉬구선 이제 쉬구선 다시 또 가야될 거 아녀? 요기서 요기서 저까지 하른 남 예 옛날에 십 리라도 집 앞에까지 하른 여기서 한 육 킬로뻑에 육 킬로뻑 육 킬론데 옛날엔 그 냥 육 킬로 십 리여. 요 넘어야 되는데 아 이게 안 떨어지네. 이게 시기한¹³⁾ 일 아녀? 네 놈이 메구 왔다가 났는데 이게 떨어지질 아니야, 도저히. 그래서 인자 거기다 놔두고 그중에서 인자 한 사람이 현감한테 가서 인자 보고를 한 거지. 일이 이렇게 되가지구 났는데. 영 이게 떨어지질 아네서¹⁴⁾ 인자 왔습시다. 하니께 그 자리다가 그거를 매장을 해라해서 고기다 매장을 했어. 매장을 해놓구 인저 자네들 그 단각시집이란 거 아냐? 단각시집이라는 거. (조사자: 단가?) 단각시집이라고 거 부처님같이 이렇기 맨들은 게 있어, 남녀를. (조사자: 음.) 그럼 산에도 지금 저 있어. (조사자: 음.) 거 인자 지붕을 인저 집을 짓고 어이? 이렇게 인저 거 일 년에 인저 거 정 간격으로 될 적에는 저 한 해 한 번이고 그담 수시 거저 저거 빌거든 이? 인자 고런 식으로 고기다가 서낭당이라고 해서 당을 서낭당이라고 해서 당을 집을 졌어. 짓고 인저 고기를 인저 그걸 인저 보호하게. 그래가지고 인저 지금으로 말하자면 인자 신종이구¹⁵⁾지? 그 인저 신기랜 디가 있어. 그 이 신기 고하고¹⁶⁾ 가차우니까 고기 있는 사람보고 그거를 관리를 해라고 하고 그 인저 그 세금을 면제해 줬지? 그 인제 그거를 인저 그때만 해도 거기가 불가 거기가 한 구 혼가 몇 호 안 살으니까 그니 고걸 고 관리를 하게 으이? 그래서 인제 거기 사람을 인제 세금을 면제시켜주고 그라고 인제 그 인저 대게 옛날에는 그 미신 정책이루 되버리면 대게 여자들은 좋아하지. 뭐 어린애 못난 사람 심정 뭐뭐 생여 줄을 갖고 와서 뭐 해 보래두. (조사자: 예.) 그 야간 (조사자: 예.) 우리도 차 생여줄 그 피문은 걸 (조사자: 예예.) 실여 그런디 옛날 사람들은 그걸 뭐에 써? (조사자: 예예.) 인제 그 거기다 대구 인저 우야른 아들 못난 사람들은 아들 낳는 다니께 이진 뭐 몇 십 리 배깁에서도 막 그냥 와서 그거하는 거지 이? 거기다 대구 이? 그래서 인저 그런 것이 고게 전설로 내려온 것이 그 자리가 지금도 있어 (조사자: 음.) 근데 인저 그 자리만 있지 그 형체는 인저 읍지. 그 터만 있어 터만 터만 고게.¹⁷⁾ 그 진대선왕이라고 인저 대 있네네.¹⁸⁾

남성, 죽산, 신동 뒤

요기 진덕산이라고 여기 일본 후지산 같이 생긴 게 요기에. (조사자: 진덕산이요?) 예, 진덕산. (조사자: 근덕산요.) 이 근덕산 옆에 그 저 후계 뭐냐든 그 바루 길 옆에 바위가 고개 한 사오 톤 나갈 겨. 큰 바위였는데, 꼭 남자들이 여자두 누가 안졌든감 폭 팽겼어.¹⁹⁾ 고개 요령기(조사자: 예.) 그래 해해 발자국 좀 있는 거 같은 디 거기가 장수가 오줌뉘서 이렇다.(조사자: 예.)이렇기 되있거던? (조사자: 장수가?) 이, 옛날 장수가. 그래서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데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이? 일 킬로 오 백이나 한 이 킬로 날라가서 하나 있고 아까 저쪽에 가서 (조사자: 벼락 벼락쳐갔고?) 이 저 울산 바위 식으로 얘기해자든 (웃음) 요거는 고령기 되있어서 고개 났는데 그 오줌 눈 자리 있잖아. 고기²⁰⁾를 꼭 쭈서 막아버리든 고 윗동내 요기 개룰이래는 데 있어. 개룰(조사자: 개루.) 으 개룰 (조사자: 개룰.) 이 개룰 개룰이래는 부락이 있는데 고것이 가내리지. 가내리 1군가 될거야. 그 동내 여

자가 처녀들이 바람 바람나서 도망간대는 거지. 인제 (조사자: 막으먼요?.) 이? 고기를 막으며는 (조사자: 아.) 오줌을 요렇게 패졌거든 고개를 고개를 인제 딱 막으버리며는(발음 불명) 여자들이 바람난다 이기야. 그람 이기 무슨 이리이 있다고 그 와서 보면 거기 누가 막아놔다 이기야. 내편지면 괜찮고 (웃음) (조사자: 아~.) 나는 실지 보지는 못했고.(조사자: 예.) 그 그것이 전설이 그런 게 있거든.

요기가 꼭 봄에 되버리면 저 구렁이가 장가를 간단 말이야. (조사자: 예.) (조사자: 스님? 아, 남자, 예.) 스님은 스님이니께 장가를 가는데 단각시렌 거 있잖아. (조사자: 예.) 거기에 여자가 있어. 인제 단각시가 여자지.(조사자: 아, 여자구렁이가요?) 건 여자구렁이가 아니지. 단각시가 여자지. (조사자: 아, 여자가요.) 인제 요렇기 인자 똑같이 (조사자: 단각시.) 인 각시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인제 다 외는 거야. 막 줘라고 나가버리고 돈도 던져가버리면 (조사자: 아.) 안 본 사람이 인제 가 좇구이? 우리가 가문²¹⁾ 선생들이 애들이 그 돈을 이렇기 일제시제 때 집어 던지든 말여 (조사자: 예.) 자기들이 좇구 (조사자: 예.) 지네들이 줘구 거기서(발음불명) 쓰는 게 있어. (조사자: 스님이 거기에 상집, 아 장가를 가셨다구요?) 이제 요게 인제 일 년에 장가 한 번씩 신방차리하는 거지. (조사자: 구렁이가요?) 잉, 신방차리하는데 요게 며친 날인지를 내가 기억이 안 난단 말여. (조사자: 예.) 다 잃어버리니까. (조사자: 예.) 우리 어렸을 때는 그것이 그 장가가는 날 안개가 착 저 골안개가.(조사자: 예.) 사람이 오지 못하게 아 요것이 이 글레로²²⁾ 그런 거 무관심하게 옛날에 달에 방아 저 뭐 토끼가 방아 쪼는 소리 없어진 식으루 이게 없어져 버려. 이게 며친 날인지 모르겠네, 이거를. (방바닥을 치면서) 근데 고것이 바루 딱 고 낭반이 딱 요 낭반이 생전에 기셨기 때문에 이월 스므여드렛날(조사자: 예.) 스므여드레(조사자: 이월.) 음력 이월 스무여드레 (조사자: 이월 이십팔일이요?) 이 그 조 고 너머에서 고기까지가 안개가 말이며, 구름이 구름이 짹 저버려. 인제 고 길 길 닦는다 그지? 그러든 구렁이가 구름을 타구 가서 거 가서 됐는디 “그믐 자식 아 거짓말이지 뭐냐?”구. (조사자: 예.) “거짓말? 가 봐라.” 그럼 단각시에 목에 개흙이 묻었다 이기야. (조사자: 아.) 개흙 진흙 뻔. (조사자: 예예.) 그게 물어. (조사자: 아.) 갔다오니까 진짜 이게 있네. 그니까 할말이 없지.(조사자: 어.) 그게 거기 있으믄 그래서 그 여 그게 그 구렁이가 증거 아냐? 목을 감구 이? 이런 게 됐는디 그거를 못 믿는 저 친구들 있지? 불순한 아주 못된 (조사자: 예.) 총각놈이 하나 있었어. (조사자: 예.) 근데 인제 작대기렌 게 있어. 인제 축작대기라 버리믄, 지게 여 이케 씨러지지 말라고 (조사자: 예예, 알아요.) 이거루 쭈셔버렸어, 단각시를. (조사자: 예.) 눈을 (조사자: 각시를.) 눈을 어? 자식이 와 가주 그날 저녁에 눈 아파 되졌잖아.²³⁾ (조사자: 아.) 눈 아파 죽어버렸어. (조사자: 예.) 그래가지구 그거는 끝끝내 더 인제 이름이 나지 이름이. (조사자: 예.) 불났는데 박진사댁 신창읍내 고너머 사람들이 고 순천양대학 있는 데야. (조사자: 예.) 그짜 동네 그 분들이 다시 또 졌는데²⁴⁾ 또 불나서 지끔은 없어졌어. 불타면 다시 졌거던. 요요 요게 요게 요게 진대선왕이 고기서 인자 일년에 한 번씩 잔잔 신방차리해고 오는 거라 (조사자: 예.) 그게 아주 현실이거든 그게.

1) 조사일정

1996. 12. 17, 김선희 기록.

군덕리 노인회관에서 나와 점심을 먹고 오후 1시에 신덕리로 출발하였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신덕리 노인회관을 찾아 헤매다 힘들게 찾았으나 노인회관에는 아무도 없었다. 지나가는 아주머니에게 구연 가능자를 물었으나 이 마을에는 그럴 만한 노인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옆 마을인 장곶리 노인회관으로 2시 35분에 출발하여 50분에 도착해 보니 노인 7명이 놀이를 하고 있었다. 구연을 부탁했으나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할 수 없이 지난 답사 때 구연해 준 조병협 씨를 찾아가 <박어사 이야기>를 듣고 3시 40분에 인근 마을인 대정리로 출발했다.

2) 마을개관

【선장면 마을 4】

336-890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장곶리.

1994. 12. 18, 이재향 조사.

대정리와 근접해 있어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장곶리는 자연 부락이름이 ‘예산뜸 노르지’로 총 200명 정도의 주민이 살며 남녀의 비율은 80대 120 정도이며 80명 정도가 노인이다. 대부분 자영농이다. 감리교를 3분의 1정도 믿으며 일부는 불교를 믿는다. 교육시설이나 공공기관은 전혀 없으며 전하는 민속행사도 없다. 아주 작은 농촌 마을이다.

1996. 12. 17, 서원기 조사.

‘예산뜸’이라는 자연부락 명칭을 가진 장곶리는 63세대 200여 명이 사는 마을이다. 밭농사는 거의 없고 논농사를 주로 하고, 가축으로 소를 몇 마리씩 먹이나 생활이 넉넉지 못하다고 한다. 학교는 신정초등학교(선장초등학교 분교), 서도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는 온양이나 예산으로 나가야 한다고 한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 마을에 장곶교회가 있다. 버스도 잘 다니지 않는 외진 곳인데 차가 다닐 수 있게 길은 닦아 놓았다. 특별한 민속행사는 없다.

3) 구연자

【장곶리 구연자 1】

아산군 선장면 장곶리 27번지, 조병협(趙炳協), 남, 72.

1994. 12. 18, 박주영 조사.

키가 작고 머리가 반쯤 벗겨졌다. 벗겨진 머리는 회색 탈색이 되었으며 코가 오뎅하다. 구연 할 때에 손가락으로 어느 곳을 가리키거나 손을 흔든다. 말꼬리에 ‘~그러’를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으면 신경질적으로 자신의 말을 확인한다. 구연 시 청중들은 대체로 귀담아 듣는 편이다. 논리적, 문맥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옛날 한 일들에 자부심을 가지고 구연했다. 역사적으로 고증된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믿으며 살아 생전 좋은 일을 하고 저 세상으로 가야한다고 하는 등 내세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권선징악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산군 선장면 장곶리 27번지, 조병협(趙炳協), 남, 74.

1996. 12. 17, 박재형 조사.

학교에는 다닌 적이 없으며 농사를 짓고 살다 지금은 노인들과 모여 소일하고 있다. 백발에 머리가 많이 벗겨졌다. 구연 시 사투리를 매우 많이 사용했다. <박어사 이야기>를 해 주었다.

4) 설화 자료

【장곶리 설화 1】

선장면 장곶리 노인정, 1994. 12. 18., 권민정, 이재향, 박주영 조사.

조병협 (남, 72)

박어사가 묘자리 본 이야기

대정, 장곶 앞

하루 저녁 나갔답니다. (조사자: 애.) 나갔는디 (조사자: 애.) 하다 보니께 참 해가 일몰했는디 (조사자: 애.) 아 산꼬락지에 들어갔어. (조사자: 애.) 산, 산꼬락지에 들어갔는디 (조사자: 애.) 아 일모가 났는디 이거시 인가는 없고 큰일났어. (조사자: 애.) 큰 걱정을 하는디 아니나고라 한참을 가니께 꼬꼬만이 초담집에서 말이여 불이 반짝반짝 켜져 있드란기여. (조사자: 예.) 그래서 가서 권을 찾은께 그 권이 나왔는디 (조사자: 예.) 잉 젊은 사람인디 이 하루 저녁만 뉘여가지고 이거 일몰되고 갈 수 없다고 어둡기도 하고 그렇게 그 사람이 이 말을 쪽 듣다보니 안 된다 그러. 못 잔다고 잉. 그 안 실내가 (조사자: 어~.) 인저 그래서 아아니 처마끝도 좋으니께 좀 자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께 그 사람이 까만 가만히 이 지가 살아가는데 이 이것 보시오. 초담집인디 입시 아주 어렵게 사, 사는디 두 홀애비가 살다 하니 (조사자: 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지유. 그래 단칸방인디 어찌키 뭐시 홀애비 신체가 있는 방을 선생님을 모시겼냐구. 그러니께 그 박어사가 하는 얘기가 아이 그 당신 혼자 밤 생각하는보다 말여 내가 같이 들어 하든 아이 좋, 좋은 일 아니냐구. (조사자: 예.) 아, 그라 그 그 그랑께 아 그러시다면 들으시라구. (조사자: 예.) 들어갔는겨. (조사자: 애.) 들어가 안져스니께 그 총각인가 두 홀애비가 살았잉께 뭐 사는 게 오죽혀? (조사자: 애.) 그러디 나가더니 참 콩보리밥을 참 소금인가 간장인가 갖다 주더라는 겨. 그래 그걸 먹구선 인저

났는디 그 묘소는 어찌게 했소. 그러이께 아 이놈 주제에 묘소는 어디 할 거가 있느냐고 말여. 아 그러냐고 그래서 거기서 인저 같이 인저 밤샘을 하고서 잉 아 인저 식전에 일찌감치 말이며 쩍 내가 알진 못하나마나마나 내가 가서 같이 인저 저 잠을 모시게 하자고 그래갖고 인저 어떡키 인저 그 전에야 머 뭐있어. 머 없는지 기냥 어찌키 입던 옷을 인저 얼거 메갔고 인저 둘이가 인제 그 송장을 인저 인저 저 아들이 짹어지구 그 저 박어사는 인저 뒷 꿈무니 쫓아가고 그 가래가 좋은 가래가 하나 있는디 그지 하나 갖구 쫓아 나갔다는겨. 나가 가만히 보니께 박어사가 생각이 아 인지 이거 사는 게 하도 하루하루 이렇게 살으니께 임시 발복할 데를 하나 잡아 준다고 거기 뚜렷뚜렷 보니께 한 삼 년만 지나면 말이며 발복할 터더, 이 봤어 박어사가. 그래서 장예를 가서 저 치르구선 말이며 (조사자: 예.) 내가 예 이치가 이친가 삼 년 뒤에 내 여기 이 시간 이때에 여길 내가 올 테니께 그런 중 알라고 그러구선 자구선 인제 작별해서 인저 왔어. (조사자: 예). 그러구 인저 한 삼 년이 인저 뒷는디 그해 그때 이 어른이 거기 찾아 갔다는겨. 박어사가 (조사자: 예.) 아 가보니께 그나마 초담집 두 없구 쑥대밭이 뒷어 말여. 아니 쑥대밭이 풀만 우거졌거든. 그런께야 내가 이 눈뵘 갖고 땡기다가 말이지 여러 사람을 내가 구치는구나²⁵⁾ 잉. 그러니께 내 눈을 빼야졌다고 인저 (청중 중 한사람이 끼어들어 말이 잠시 중단됨.) 궁기 내가 눈이 멀었냐. 이게 분명히 임시 바꿈으로 내가 서 뒷는디 그러이께 눈을 딱 감고서니 손을 다 호주머니다 손을 넣고서니 칼을 꺼내서 내 이 눈을 빼야지. 기냥 갖고 땡기다가 내 여러 사람을 내 군처 그리이گی여. 호주머니 넣고 여 눈을 딱 감고 있으이께 말이지 공중에서 그러더라는겨. “아니다, 아니다.” 그러더라는겨. 근디 이 맹인은 말이지 생전에 살인을 쫓한 사람이여. 살인을 사람을 시신을 죽인 사람이여. (조사자: 예.) 그래서 네 눈을 가렸으께 다시 봐라. 그러더라는겨. 깜깜해서 봉께 아무 꺾도 없어. (조사자: 어). 그래서 그 뒤로 인저 새로 꺼내놓고 보니께 아 좌산을 뒷어. 그렇게 좌산에다 뒷으께 살 수가 있나. 그렇게 죽었다는겨. (조사자: 아, 예). 그 예 아무리 저 (조사자: 배워봐.) 말이지 잉 물론 복이 있으면 잘산다 하지 말이지 살아 생전에 좋은 일을 해야지, 살아 생전에 몹쓸 짓을 하면 말이지 (조사자: 예.) 안 된다는 기다. (조사자: 네.) 내 이런 얘길 들었어요. (조사자: 애 허허.). 내 이거 이거 아주 두서 없는 이야기를 해서 이거 미안합니다.

선장면 장곶리 조병협 씨 집, 1996. 12. 17., 김선희, 서원기, 강미정, 박제형 조사.

조병협 (남, 74)

박어사 이야기

군덕, 장곶, 대정 앞

그게 누군가? 함경도 박어산가? 박어사 얘기. 박어사가 하루 집을 나갔는디. (조사자: 예.) 으이? 아니 이 산에 이 날이 인저 저물 산 산골에 들어갔는디 (조사자: 예.) 날은 저물었는디 인가는 없고 큰 일 났어. (조사자: 어~.) 그래 인저 점점 들어가니께 아 웬 불이 하나 반짝반짝하더라 해요. (조사자: 아~, 예.) 그래 가보니께 쪼끈 토담집이여. (조사자: 어.) 그래 인제 뭐 찾으니께 떠꺼머리 총각이 하나 나와. (조사자: 음.) 어이 나 지나가는 행인인디 하룻밤만 뉘여 달라니께 말이며. (조사자: 으.) 아 이 총각이 안 된다는겨 여. (조사자: 음.) 아 처마 아무 데나 좋으니께 좀 자고가게 해달라니께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두 흘

애비가 살았는디 (조사자: 예.) 자기 아버지도 혼자 인저 살고 저도 인저 장가도 안 가고 홀 애비로 사는디 (조사자: 예.) 아버님이 돌아가서 인제 신체있는 방에 당칸 방인데 거기다 모실 수가 있느냐고. (조사자: 음~.) 아 그러거덩. 그러니께 그 어사가 있다가 “아 내가 들어가 같이 반잠도 하면 좋잖소?” (조사자: 아~.) 아 그러니께 아 그러시다면 들어오시라고 허허 (웃음) (조사자: 예.) 그러구서 어사를 하느냐니께 어사를 어사 해논 게 있느냐니께 산을 잡아 놓은 게 있느냐니께? 아 이런 주제에 산을 어디 가서 저 잡아놓느냐고 말이여. (조사자: 음.) 산을 뭐 목구녕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거기 뭐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조사자: 음.) 그러네. (조사자: 음.) 그니께 어사가 가만히 생각하니께 아 참 측은한 생각이 들어 아주 참말로 (조사자: 음.) 그러니께 인제 둘이가 인저 헛 옷 입던걸 인제 내다가 허구선 말이여 (조사자: 으.) 그 이튿날 이제 그 저 그 총각하구 인저 그 (발음불명) 지라고 저 산으로 올라가자고 (조사자: 음.) 그 인저 그 총각은 인저 저 이 아버지 인제 젊어지고 근데 박어사가 나가서 임시로 봐둔 데 나가서 봐뒀어, (조사자: 음.) 식전에 나가서. (조사자: 산세를요?) 응. 그래서 인저 그래서 인저 지고 나가서 여 여기다 받쳐 놓으라구 (조사자: 음.) 받쳐놓고 테²⁶⁾를 보니 그 3년 내에 발목할²⁷⁾ 거여. 3년이면 발목될 자리를 인제 잡혔어. (조사자: 어~.) 그래서 그거를 장례를 인저 다 치르구 인저 둘이가 인저, 3년 후에 늦은 봄이 내 여길 찾아올테니께 그 때 가서 만나자구. (조사자: 어~.) 약속을 하구서 인저 떠났어, 거기서 인저. (조사자: 어.) 아 3년 뒤 고 고대로 가서 인저 그 봄이 돌아왔는디. (조사자: 예.) 아 저저 계실라나 하고 거기 찾아갔네. (조사자: 어~.) 아 찾아가이께 그나마 없어 뭐 아무것도 없어. 아주 풀만 우거지고 말이여. (조사자: 어.) 허허 이노무 저저 터가 보통 아닌데 거길 올라가 보니께 아주 쓸데없는 말이야 풀만 우거지고 뭐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아. (조사자: 음.) 그래서 인저 박어사가 생각에 내가 이 눈구멍을 갖고 땡기다가 말이여, (조사자: 음.) 이 여러 사람 못 살리니께 (조사자: 음.) 내가 이 눈을 빼야겠다고 인저 거기 서서 (조사자: 음.) 눈을 빨라고 호주머니 뒤져 인저. 손수건 칼을 꺼내가지고 인저 눈을 빨려고 인저 저 혼자 그러니께 인저 공중에서 “아니다, 아니다.” 그러거든. (조사자: 공중에서요?) 잉. (조사자: 음.) 그더니 “그 맹인은 말이여 살아 생전에 살인을 한 사람이여.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을 좋은 데로 들어가게 할 수가 없어서 네 눈을 가려 가렸느니라. (조사자: 음.) 다시 봐라.” 그러네. 그러니 박문수 다시 보라고 (조사자: 음.) 그러니 좌향을 틀어놔어. 그러이께 산신이 틀어놔 준 거지, 그러이께. 아 이거 그 자기가 자시 보니께 아 좌살을 다 놔네 그랴. (조사자: 예?) 주화살이다 놔어. 주화살이다 (조사자: 주화살이요?) 잉 주화살. 그러니께 그 죽고 다 멸망했지. (조사자: 음~.) 눈을 딱 뜨고 보니께 암것두 없어. 그러니께 그 사람이 눈을 뜰려고 하니께 눈 빼 그 억한 사람 눈을 빼니께 그 산신이 공중에서 그렇게 얘기해 줬다는 얘기여. 그런 전설 얘기가 있더라고 (웃음) 그것이 사람은 항상 살아서 잉? 남에게 좋은 일을 해야지 말이여. (조사자: 예.)

마. 선장면 마을 5 (죽산리)

1) 조사일정

1996. 12. 17, 김선희 기록.

10시 25분에 숙소를 출발하여 죽산리로 향했다. 죽산2리에 도착하니 11시 10분이었다. 노인회관을 찾아갔더니 노인들이, 자기네들은 나이가 별로 많지 않아서 해 줄 얘기가 별로 없다고 했다. 그러더니 얘기 잘 하는 노인을 소개해 주겠다고면서 전화를 하여 노인회관으로 오게 했다. 그 노인이 도착할 때까지 김영수씨가 마을의 유래와 도깨비불 이야기를 해 주었으나 실제 경험을 중심으로 한 얘기여서 자료적 가치는 없는 것이었다. 그 때 이창희 씨가 도착하여 <널다리, 광암리의 유래>, <학성산의 유래>에 대하여 구연해 주었다. 더 이상 구연해 줄 이야기가 없는 듯하여 11시 40분에 다음 조사지로 향했다.

2) 마을개관

【선장면 마을 5】

336-890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죽산리.

1996. 12. 17, 지명현 조사

광암리, 중천으로도 불리는 마을인데, 각각 넓은 바위와 가운데 마을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60~70호가 거주하고 있고 논농사를 주로 지으며 수박, 포도 등 과수 농사를 하는 가구도 있다. 근처에 학선초등학교가 있고 대부분 유교적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어서 기독교나 불교 신자는 매우 적은 편이다.

3) 구연자

【죽산리 구연자 1】

아산시 선장면 죽산 2구 228번지, 이창희, 남, 71.

1996. 12. 17, 서화일 조사.

이 마을에서 태어나 줄곧 여기서 살았다고 한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농사를 지으면 살았다. 외모상의 특징으로는 체구는 작은 편이며 검은색 머리에 얼굴은 희고 네모난 안경을 끼고 있다. 구연 시 눈을 자주 깜빡거리면서 어깨를 움츠렸다 폈다하는 버릇이 있다. 이야기 내용에 따라 다양한 제스처어를 한다. 양반의식을 강하게 표출하였고 청중들도 대체로 이야기에 동참하였다.

4) 설화 자료

【죽산리 설화 1】

선장면 죽산 2구 노인회관, 1996. 12. 17. 유정, 서화일, 지명현 조사.

이창희 (남, 71)

너더리와 우중미 유래, 학성산 유래

남성, 죽산, 신동 앞

(너더리가 뭐예요?) 너더리가 뭐인지 아리켜 줄라고 그러는 거여, 지금. (조사자: 예예 하하하.) 널다리를 너더리라고 그러는 게여. 널다리 널널 널판 (조사자: 예.) 널 다리 판교. 판(板) 다리 교(橋)자 판교. 우리가 판교라고 그러믄 유식허니께 기냥 널다리라고 했던 말여. 왜 널다리라고 했냐 말여. 이 고랑을 (조사자: 네.) 옛날에 천지개벽 전에 여기 물이 들어왔디아. 뱃물이 뱃물이 뱃물이 딱 이렇게 조공을 받칠 때 그게 요즘으로 말하믄 취득센가? (조사자: 예.) 농자 농지세 같은 것을 서울로 보낼 때, (청중: 취득세, 취득세.) 배 이 배를 여기다 갖다 미리 대구 요기서 늪다리 대구 (청중: 기침) 짐을 실어다구 해서 늪다리라고 하는 거. 너더리 여어 위를 동네는 지금 읍어졌지만 도랑이 있어. 인제 그것이 널다리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 거기에. 그리구 거 뒤에 또 하나 산이 큰 게 있는디 그 산이 산 이름이 우중미라고 그래거든. (조사자: 예.) 비오는 날 경치가 좋다고 우중미여. 비 우(雨)자 가운데 중(中)자 아름다울 미(美)자 (조사자: 아.) 그런 전설은 내가 알어. (조사자: 하하.)

학성산. (학성산이요?) 그러고 보니께 학성산도 몰르고 왔구만. (조사자: 아니요, 봤어요.) 봤지? (조사자: 예.) 거기 올라가면 성이 있어요. (조사자: 성이요?) 예. (조사자: 어.) 그르코 학성산이라고 해서 학 학이 앉아 학(조사자: 날으는 학?) 기렁지 학. 그 학성산이거든. 근데 성은 있는데 그 성 째 사람이 몰러, 누가……. 전설이 하나도 없어, 이거는. 이건 없어. 이건 그리 예기하지 말고 그게 그 그 산은 왜 학성산이라고 했냐면 나중에 저 중장리, 대흥리라고 허는데 가며는 대흥리 안 가봤나 몰러도, (조사자: 대흥리요? 갈려구요.) 갔었어? (조사자: 갈려구요.) 갈려구 그러지? 대흥리 뒷산에 가며는 지가 산이 있었는디 지금은 읍어졌지. 저게 여관을 졌나 무슨 졌어.(발음불명) 거기 가며는 무덤이 큰 게 하나 있어. (청중: 옛날에 김좌진 장군 묘라 구했어.) 김좌진, 몰라도 허여튼 (기침) 그렸을 때 아들이 오형젠데, 죽은 사람 아들이. 그게 그게 파 파니께 바위? 저저이 암반이 나오드레거든. 그래서 이거를 더 파야 더 떠들고 뭐 이래야 쓰것냐 그냥그냥 쓰냐? 오형제가 싸우다가 큰 아들이 이거 요렇게 선 야터서²⁸⁾ 못 쓴다고 더 파야한다고 바위를 드러내고 씨자 그러게 바위를 힘을 들여서 열으니께 김이 나면서 학 한마리가 나 날러서 이 산에 와서 앉더라 이 말이여 (청중: 학성산.) 한 이 한 시오리는 될걸. (청중: 되구지, 남지.) 여그 와서 앉었기 때미, 이 산이 학이 앉어서 학성산이여. (조사자: 아.) 학성산, 학성역 (조사자: 예.) 학성이란 말이 여 거그서 나왔다고 거기서 오형제가 싸워서 뭐이가 있어요. 가보면 그 뭐 있어요. (조사자: 오형제가 싸워서?) 응 쓰긴 썼다. (청중: 그건 소용없어.) 날러간 거 뭐해냐? (청중: 날아간데 소용없어) 어. (청중: 그다 헛일이여.)

1) 근걸 : 그런 것을

2) 발객이 : 발각이

3) 사람인데 : 사람한테

4) 새내끼 : 새끼

5) 내분 : 내버린

6) 지사 : 제사

7) 그 집 빼긴 : 그집밖엔

8) 백깃 : 바깥

9) 깨니께 : 깨우니까

10) 구 혼가백게 : 9호인가밖에, 9호 정도밖에

11) 조곡(租穀) : 조세로 내는 곡식

12) 벼루 수맬 했거든 : 벼로 수매(收買)를 했거든

13) 시기한 : 신기한

14) 아네서 : 알아서

15) 시종이구 : 신동리 2구인 듯함.

16) 고후고 : 거기하고

17) 고계 : 거기에

18) 대 있테네 : 되어 있다고 하네.

19) 팽졌어 : 패였어.

20) 고기를 : 거기를, 그곳을.

21) 가문 : 가면

22) 글레로 : 근래로, 근래에 와서

23) 되졌잖아 : 죽었잖아.

24) 졌는데 : 지었는데

25) 구치는구나 : 그르치는구나

26) 테 : 터

27) 발목 할 : 발복(發福)할

28) 야터서 : 알아서